



이 겨울 가기 전에... 휴일인 12일, 광주 북구 생용동 패밀러랜드 눈썰매장을 찾은 가족들이 튜브 모양의 썰매를 타고 비탈진 눈길을 신나게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환영회가 괴로운 대학 신입생들

### “춤 등 장기자랑 강요 괴로워” 학과 커뮤니티 하소연 잇따라 불참 학생에 벌금 징수 논란... “선후배 어울릴 대안 찾아야”

“신입생들에게 장기자랑을 왜 시키는 건가요? 선배들에겐 잠깐의 유희일 수도 있겠지만 신입생들에게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남학생에게 여장 좀 시키기 마시다. 남학생을 여자시켜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을 왜 강요합니까? 남자 인권도 존중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입학철을 맞아 각 대학에서 신입생 환영회와 오리엔테이션 등의 행사가 열리는 2월, 전남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행사를 위한 춤이나 노래 등 장기자랑을 강요당하는 학생들의 하소연이 줄을 잇고 있다.

이명으로 올라온 글에 따르면 각 과에서 진행되는 행사에서 신입생들에게 장기자랑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신입생들이 장기자랑을 왜 해야하는 것이냐”는 한 학생의 글에는 30개도 넘는 댓글이 달렸다. 이 글을 시작으로 “신입생들에게 강제적으로 장기자랑을 하라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 장기자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폭력행위에 대해 제고해 봐야한다”, “장기자랑 참가자를 받지 말고 불참자를 받게 어떨까요?”, “강제적인 장기자랑 말고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대안을 찾아봅시다” 등 장기자랑에 반대하는 내용의 글이

넘쳐났다. 또 다른 학생은 “장기자랑을 하는 것은 위계적인 조직문화”라며 “선배들이 모범이 돼서 먼저 장기자랑을 하는 게 어렵다. 새내기배우거나 OT, MT 등은 주로 새내기가 주인공인 자리인 만큼 선배들이 장기자랑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보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일부 학과에서 내도록 하고 있는 불참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전남대 한 단과대학의 학생회가 OT나 MT 등 행사를 준비하면서 학과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불참비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사범대학의 한 학생은 “학과 행사에 참여하고 안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한다”며 “작년에 같은 문

제로 많은 사람이 건의를 했는데, 학생회 측에서는 왜 건의사항을 해결하지도 않고 올해도 불참비를 걷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과 학생 역시 “우리 과는 학과 행사 불참자에게도 행사 참석자와 똑같은 금액의 돈을 걷는다”며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인데 이러한 자유를 불참비로 침해받아서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전남대학교 관계자는 “장기자랑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부당한 강요가 있었다면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학생 지도를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 의문만 남은 광주 도심 비둘기 집단폐사 동구청도 새마을기 철거

### AI·독극물 검출 안돼

방역당국을 긴장케 한 광주 도심 비둘기 집단폐사는 결국 의문사로 남게 됐다. 비둘기 사체에서 ‘AI(조류인플루엔자)’도 ‘독극물 먹이’도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주북부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한 광주 비둘기 집단폐사 현장 인근의 먹이에서 ‘독극물이나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집단폐사한 비둘기들이 독극물 먹이를 먹고 죽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국과수에서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 내사 종결할

방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구는 비둘기 사체를 수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사인 검사를 의뢰했다. AI가 확산됨에 따라 비둘기들이 AI 감염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환경연구원 정밀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북구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는 비둘기가 왜 한 장소에서 집단으로 폐사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0일 오전 9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입동의 한 도로변에 비둘기 폐사체 9마리가 발견돼 ‘AI 감염’ 여부를 놓고 방역당국을 긴장하게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 지자체 중 북구청만 계약

광주 동구청이 시민사회단체가 철거를 요구한 새마을기를 내렸다. 이로써 광주 지역 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북구청만 새마을기를 내릴게 됐다. 12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동구는 지난 9일 청사 앞 계약대에 걸려있던 새마을기를 철거했다. 동구 관계자는 “시대적 변화에 맞춰 새마을기를 내리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철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남구는 옛 봉선동 남구청사에서 지금의 주월동 청사로 이전하면서 새마을기를 내렸다. 광산구는 지난달 2일부터 새마을기를 걸지 않았고, 서구는 지난달 16

일 새마을기를 내리고 대신 ‘정부 3.0기’를 계약하고 있다. 광주시도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달 19일부터 새마을기를 계약하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도 잇따라 새마을기를 철거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10일 개원 26년 만에 새마을기를 내리고 ‘광주시기’로 교체했다. 북구청과 계약대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북구의회는 지난 8일 의원총회를 열어 “유신 잔재 논란을 빚어온 새마을기 철거하라”고 북구청에 요구했다. 동구의회와 서구의회는 그러나 여전히 새마을기를 내걸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21 | 해질 18:13 | 달출몰 20:33 | 달지름 08:36

**포근해져요**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밤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후비/눈 -4/9 | 보성 차차흐려져비 -5/8 | 목포 맑음/후흐림 -2/9 | 순천 차차흐려져비 -1/9 | 여수 맑음/후흐림 -1/9 | 영광 차차흐려져비 -6/7 | 나주 맑음/후비/눈 -7/8 | 진도 맑음/후흐림 -1/8 | 완도 맑음/후흐림 -1/10 | 전주 맑음/후비/눈 -4/8 | 구례 차차흐려져비 -5/8 | 군산 맑음/후비/눈 -5/7 | 강진 차차흐려져비 -4/9 | 남원 차차흐려져비 -7/8 | 해남 차차흐려져비 -5/9 | 흑산도 맑음 2/11 | 장성 맑음/후비/눈 -6/8

◇바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남서~서	0.5	서~북서	0.5~1.0
	남서~서	0.5~1.5	서~북서	1.0~2.0
남해서부	남서~북	0.5	서~북서	0.5~1.0
	남서~북	0.5~1.5	서~북서	1.0~2.0
남해남부	남서~북	0.5~1.5	서~북서	1.0~2.0
	남서~북	1.0~1.5	서~북서	1.0~2.0

◇생활지수

- 매우높음
- 높음
- 매우높음
- 감기
- 관심
- 체감온도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8:50	03:34
여수	간조	만조
	21:17	16:09
여수	간조	만조
	04:24	10:49
여수	간조	만조
	16:47	23:02

◇주간 날씨

14(화)	15(수)	16(목)	17(금)	18(토)	19(일)	20(월)
☀	☀	☀	☁	☀	☀	☁
-2/8	-3/10	0/13	3/8	-2/8	-2/8	0/11

## 오늘밤부터 다시 눈... 모레부터 풀려

### 빙판길·수도 동파 주의

지난 주말과 휴일 전국적으로 한파가 맹위를 떨치면서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빙판길 교통사고와 입산통제, 동파사고 등으로 시민 불편이 잇따랐다. 광주·전남에선 월요일인 13일에도 눈이 예보되는 등 추위가 이어지다 15일째부터 날씨가 풀릴 것으로 전망됐다. 1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3일 화성, 담양, 장성 등 전남동부 내륙지역에는 밤부터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적설량은 1~3cm다. 광주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14일에는 곡성, 담양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5도, 그리고 광주는 영하 4

도까지 떨어지는 등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까지 광주·전남 지역에는 최고 9cm의 눈이 내렸다. 기상청에 따르면 11일 오전 11시 기준 적설량은 나주 10cm, 목포 8.5cm, 함평 6.5cm, 장성 6.1cm, 영광 4.5cm, 광주 3.1cm로 집계됐다. 이번 눈으로 목포, 여수, 완도 등을 오가는 55개 항로 여객선 92척 가운데 28개 항로 여객선 55척의 운항이 통제됐다. 또한, 무등산, 내장산 월출산 국립공원의 입산 및 탐방로 통행이 통제됐다. 광주지역 99개 시내버스 노선 중 6개 노선이 단축, 7개 노선이 우회 운행을 하게 됐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 광주교육청 난독증 학생 치료 지원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난독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광주시내 초등학생 가운데 읽기 학습이 부진한 학생 1천1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읽기 곤란 예상 학생 195명, 난독증 의심 326명, 난독증 추정 164명 등 모두 685명이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권일기자 cki@

하고 난독증 학생 실태 파악과 필요한 검사 시행 등이 포함된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지난해 9월 광주 시내 초등학생 가운데 읽기 학습이 부진한 학생 1천1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읽기 곤란 예상 학생 195명, 난독증 의심 326명, 난독증 추정 164명 등 모두 685명이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권일기자 cki@

## 태양광발전소 분양모집

# 해만 뜨면 돈이 들어오는 태양광발전사업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안정되고 지속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
-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
- ▶사업(장사)에 노하우 및 기술에 대해 자신 없는 분
- ▶창고, 축사, 공장, 땅 등 기타 부동산 소유하신 분

**투자예 장점!!**

- ▶특별한 기술적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 ▶적자를 보지 않는 사업!!
- ▶안정적인 전기 매입처 (한국전력·전력거래소 / 18개 메이저 발전자회사)
- ▶안정적이고 반영구적인 발전설비 (모듈 수명 20년 보증, 보증서 발급)

**태양광발전소 투자하고 싶은데 건물·땅 없는 분!!**

분양모집중

전국전역의 회사 보유분 발전소

H·P **011-608-9593**  
CALL CENTER **1522-6570**

상담문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에이엠 (주)이엠**

ENERGY Marketing

www.emsolar.kr